구쇼묘진 혼덴·사유덴

구쇼묘진을 구성하고 있는 세 건물을 처음 본 사람은 전형적인 불교 건축이라는 인상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 건물들은 일본의 토착 종교인 신도(神道)의 기도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신도는 6 세기에 불교가 일본에 전래된 이래 서로 혼합되며 존재해 왔습니다. 때로 정치적인 투쟁에서 이 두 종교가 대립한 적도 있었지만, 신도의 사당이 불교 사원 안에 지어져 절의 수호신으로 자리매김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도의 신을 모시는 사당 건축의 특징은 불교 사원과 구별할 수 있지만, 구쇼묘진의 혼덴(본전)과 사유덴은 주위의 사원 건축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시고 있는 신은 부처님이 아니라 일본 전국에 존재하는 신사와 마찬가지로 신도의 신입니다. 혼덴에는 '이와시미즈 하치만구 신사의 하치만 신', 사유덴에는 여덟 신사의 신을 모시고 있어 총 9 곳의 신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서 '구쇼묘진(九所明神)'이라고 합니다. 구쇼묘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술은 1212 년의 황실 기록에 나오는데, 현재의 건물은 17 세기 초에 지어진 것입니다.